Data 기반 R&D 혁신 체계 구축 - 글로벌 연구혁신 토대 마련 -

1. 국내외 동향

□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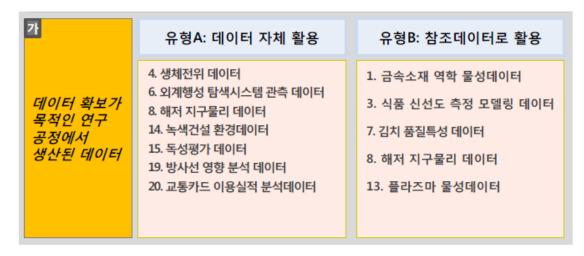
-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데이터(Research Data)는 그 중요성이나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논문, 학술발표자료, 특허 등과 같은 연구결과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공적 재원을바탕으로 생산된 연구 데이터의 공개접근을 강조한 이래 최근 수년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및 활용을 위한적극적인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NSF, NIH, DOE 등
 - 영국의 경우 RCUK(Research Council UK)
 - 호주의 경우 ARC, Universities Australia 등
 - ☞ 주요국은 공통으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정책을 갖고 있음 · 연구비 지원계획서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
- 연구 데이터(Research Dat)의 유형
 - ① 실험(experimental), 관찰(observational), 시뮬레이션(simulation) Data
 - ② 코드(codes),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듬(software/algorithms)
 - ③ 텍스트(text), 수치(numeric) 정보
 - ④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정보 포함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괄
 - * 출처 : DOE
 - → 위와 같은 데이터 생산은
 - ① 연구수행 목적 중 하나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와,
 - ② 연구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음

□ 국내

- 데이터 생산 및 관리
 - KISTI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22개)를 대상으로 데이터 생산 및 관리 현황 조사 실시(2015)

[과학데이터 생산·활용 현황조사 결과 -KISTI(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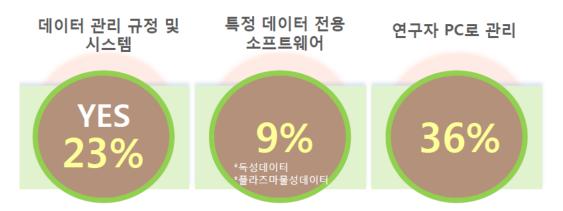




- 그러나 생산된 연구 데이터가 추후 재현 및 해석되기 위해서는 생산시 활용되었던 프로토콜,공정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대부분은 관리·공유되지 못함 → 데이터 활용 불가 및 신뢰도 저하초래
 - ☞ 데이터와 특정 소프트웨어를 함께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

O Data 관리

[연구 데이터 관리 현황-KISTI(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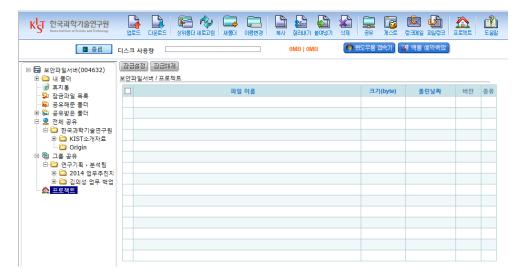
- 연구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과 전용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표준 가이드라인(시스템 및 절차) 및 전담인력 필요
- 연구자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큼 → 메타데이터 생성, 데이터 정제 등 부가적인 작업 최소화 지원정책 필요
- 향후 공동 연구 및 융합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 및 공동활용 을 위한 기반 인프라 취약 → 데이터 보안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연구자들은 타 연구그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해 하지만, 나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인식 팽배 → 인센티브 및 제도/문화 도입 필요

□ KIST 데이터 관리 현황

○ (전자) 연구노트



○ 연구자료 Backup 시스템



○ 연구성과관리시스템



- 2. 데이터 기반 R&D 제도 및 인프라 제안
 - 필요성 : 데이터 공유를 통한 Open Science 중심의 융합연구 수행으로 4세대 연구혁신 추구
 - 연구수행 전주기적 데이터 관리 ·활용체계 구축



- 연구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전사적 로드맵 수립
 - ·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연구기획분석팀, 정보통신팀)
 - · 데이터 생산 인벤토리, 유형별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체계 수립
 - 연구자 인센티브 및 권리보호 방안 강구
- 연구 데이터 공동 활용 시범 R&D사업 실시
 - · 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여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공유할 수 있는 사례 발굴
 - ·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 전주기적 관리 활용 체계

